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목사 참..

김 성 국

아니 한국에도 그런 목사가 있었다니
이번 여름 2달 동안 교인들과 협의해
교회당 문을 닫고 모든 교인들이 다른 교회 탐방을 했단다

노회서는 그걸 알고 교회당 문을 닫은 목사를 징계하려고 한단다
그 젊은 목사는 "교회문이 아니라 교회당 문"이라고 해도
노회안에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은가 보다
더구나 2개월 후에 다시 모여 예배 드렸을 때
한 가정도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2가정이 더 참석했다는 데도 말이다.

청장년 30여명이 모이는 교회서 2가정이 전도 됐으면 큰 사건이다.
단지 평가회에서 2개월은 좀 길었다고 했단다
그것도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니 교인들이 존경스럽다

우리 교우들도 내 설교에 지겨워질 때도 됐다. 4년째 같은 설교 스타일만 들으니..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연초가 되면 수요예배를 탐방으로 한지가 벌써 두 해를 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느냐?" "탐방이냐 염탐이냐?" 하더라
자신이 없으니 탐방한다. 자신 있으면 내가 만든 양식만 먹이지
염탐도 해야 한다. 좋은 것이라면 못 배워 올 이유가 없다

서로 부족한데를 보충 해 주는게 사랑이라던데
그래, 한가지만이라도 잘하자
나머지는 테이프도 있고 책도 있고 탐방도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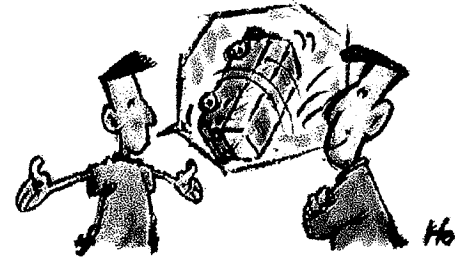
목사도 안식년이 있는데
성도라고 출창 자기교회서만 예배를 드려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네 교회 내 교회에 관심도 없다.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관심이다
그러니 더 도전되는 말씀 듣고 성숙해진다면 성도와 하나님 모두 만세
거기다 새끼까지 쳐서 들어온 새옹지마가 된다면 더 좋을테고.



◀그맨 그랬지▶ 찰스 브론슨과 '황야의 7인'
굴직굴직한 얼굴선, 유난히도 많은 얼굴 주름과
뾰족함으로 카리스마를 만들어냈던 찰스 브론슨이
81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신문 보도입니다. "황야의
7인"총잡이들이 울 브린너에 이어 하나 둘 바람처럼
떠납니다. 어디 하나 잘 생긴데가 있는 얼굴이
아니지만 선량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악당을 물리
치던 그의 연기는 힘든 시대를 살던 모두에게 시원
한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코메디언 남보원 씨
가 그를 많이 닮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38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9월21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갔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서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
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건 기적이예요!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제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나서 일곱 바퀴나 굴렀어
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말짱해요.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

"아버지는 여덟 바퀴 굴렀나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엄마가 딸에게
완벽을 꿈꾸지 마라
청결도 지나치면
결벽증이 된다
결벽증은 너와 가족을
피곤하게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마라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육체는 멀쩡하나
정신이 황폐한
진짜 장애인을 조심하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8 (시편 67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50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3:4-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은(1) "오래참는 것"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14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김교섭 장로 가정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7	노은숙	임숙경	우리는..	최현철, 경덕현
14	박일영	정성호	교역자 가족	고성일, 권용일
21	이광희	최현철	김교섭, 정희자	김경구, 김교섭
28	이규임	한상미	김영길, 신경화	김반석, 김성국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 <귀국> 지찬영 권사, 미국에 계신 어머니 방문 마치고 오셨습니다. 오랜 병석의 어머니를 떠나 올 때 차마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를 할 수 없어 "또 올게요"라고 하얀 거짓말만 합니다
 - <한국방문> 김종건 장로, 부모님 방문 위해... 손주 보실 나이셔도 부모님 앞에선 영원한 아이, 평안히 다녀오심을 기도 드립니다
- 수요특별찬양. <일시> 수요일 저녁 7:30
 - *이번주 수요일예배는 Auckland 여성선교중앙단 "살롬" 초청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방학맞은 자녀들과 함께 한 밤에 듣는 아름다운 찬양의 화음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될 것입니다.
- 학생부 방학 Camp (학생부 안내문 배부)
 - <일시> 26일(금) 저녁 5시 - 27일(토) 오후3시까지 (1박 2일)
 - <장소> Long Bay Park MERC Camp
 - *Camp 까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데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ar Pull)
 - *토요일 Pick Up : 오후 3시 Long Bay Park 입구
- 제1 여성교회 정기월례회
 - *오늘 Tea Time시간에 갖습니다
- 제2 여성교회 임원보선 <회계> 신미숙
- 영화클럽 정기영화상영(안내문 참조). 오늘 Tea Time 직후
 - <영화명> "I am Sam"
 - <자원봉사> 자칫 지루해질 영화를 Coffee 마시면서 우아하게 보고 싶습니다
 -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를 골라 보았습니다.

◀착한 시인들▶ 매밀꽃 필 무렵 中에서
-이 호 석-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매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늦은 밤, 집으로 가는 달빛 길에 하얀 빛꽃이 소름 돋도록 제 모습들을 그려대고 있습니다.
그럴때면 봉평 산허리에 소금 뿌린 그림을 펼쳐내는 달밤의 메밀 꽃이 그림습니다. 허 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의 물레방아는 아직도 돌아 가는지...
밤길을 동이와 같이 걸어가던 허 생원의 나귀 방울 딸랑딸랑 소리에 자동차 엔진의 목 걸죽한 소리도 감당 못하고 숨 죽입니다